

양곡 소세양 설화의 유형별 의미와 인물 형상

김승연

전북대학교 강사, 구비문학 전공

woldkim@daum.net

- I. 머리말
 - II. 세 유형의 풍수담에 그려진 소세양의 다층적 형상
 - III. 애정담에 나타난 사대부 남성 소세양의 사랑과 성공
 - IV. 지혜담을 통해서 본 문제해결자로서의 소세양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중기 문인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1486(성종17)-1562(명종17))은 익산에서 태어나 1504년(연산군10)에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육조 판서와 의정부 좌찬성과 우찬성을 지냈고, 이사(貳師)와 문형(文衡)에까지 올랐다. 소세양은 19세에 과거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유능한 관료였고, 송설체라는 서예 글씨와 시문에 뛰어났던 문인이었다. 특히 종사관으로서 명나라 사신을 맞아 뛰어난 문장력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다는 일화를 남기며,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서 조선 내외에 문명을 떨쳤다. 게다가 대제학을 맡을 정도로 시문과 학덕을 겸한 출중한 인격을 갖추어 16세기 대표적인 관료 문인으로 손꼽힌다.

유능한 관료 문인이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던 소세양은 문헌과 구비 설화의 주인공으로도 전승되고 있다. 『양곡집』, 『수춘만록』, 『어우야담』 등 고전문헌 및 족보에 소세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 소세양의 출신지이자 진주소씨 세거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구비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¹ 설화의 주요 전승집단이자 기억 공동체인 진주소씨 가문에게 소세양은 가문이 낳은 훌륭한 인물로서 이야기 행위를 통해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대표 조상이다.² 소세양의 생애와 행적은 지역의

-
- 1 소세양은 익산군 금마면 도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며,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탄곡 용화산 동쪽 산기슭에 묻혔다. 익산의 진주소씨 주요 세거지는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와 발산리 일대, 금마면 동고도리와 서고도리,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등지이다. 소세양 관련 구비설화의 주요 전승지는 익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완주와 전주 일대이다.
 - 2 소세양은 정언, 장령, 직제학, 육판서를 거쳐, 좌찬성 겸 양관(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의 文衡을 잡고 세자 貳師까지 지냈다. 특히 대제학 벼슬은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품을 갖춘 碩儒만 오르는 직위라서 진주소씨 가문에서는 소세양이 양관 대제학을 지낸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설화 전승층에게도 영감을 주어 구비설화 생성과 전승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풍수담, 애정담, 지혜담 유형으로 전승되는 소세양 관련 설화는 편찬자 또는 전승집단의 성격과 전승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지향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소세양 관련 설화의 유형별 의미를 살펴보고, 유형별로 설화 전승층이 그려낸 소세양의 인물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소세양 설화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는 못자리를 소점한 지관이 혈에서 나온 벌에 쏘여 죽는다는 공통된 화소가 나오고, 소세양이 명당 발복으로 출세했다는 내용의 벌명당 전설이다. 벌명당 전설은 가문과 지역 전승층에 따라 초점화되는 부분과 서사의미가 다르다. 『어우야담』 소재 벌명당 전설은 동일한 화소를 기반으로 한 풍수담이지만 편찬자 유몽인의 독특한 인식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두 번째는 사대부 남성 소세양과 연애와 혼인으로 관계된 두 여인이 등장하는 애정담이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일화는 조선 최고 기녀 황진이의 명성에 걸맞은 상대남인 소세양의 연애담으로도 널리 구전되었다. 황각동 처녀는 집안간의 격차로 소세양과 혼인을 맺지 못하게 되자 자결했다는 전설의 주인공인데 익산지역에 한정하여 구전된다. 세 번째는 소세양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는 지혜담이다. 지혜담은 문제가 유발되는 지점과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지략담과 신원담의 하위 유형이 전승된다.

II. 세 유형의 풍수담에 그려진 소세양의 다층적 형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산정에 있는 진주소씨 선산을 속칭 '벌명당'이라 부른다. 진주소씨 가문에서는 벌명당이 호남 4대 명당 중 하나라고 하며

별명당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별명당 획득과 발복에 관한 별명당 전설은 지관이 못자리를 소점한 후 혈에서 나온 벌에 쏘여 죽는다는 화소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풍수담으로, 진주소씨뿐만 아니라 반남박씨, 동래정씨, 청풍김씨 등 다른 가문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소세양과 관련된 별명당 전설은 전승 주체와 서사화 양상에 따라 세 유형이 있다. (1) 『진주소씨대동보』 선조유사(先祖 遺事)와 이에 근거한 가문 내의 구전, (2) 『어우야담』 소재 ‘소세양 삼형제의 장지 잡기’, (3) 완주지역에서 전승되는 발산소씨 유래담이 그것이다. 세 유형의 별명당 전설은, 지관(또는 도승)의 명당 소점 동기가 각 유형의 서사 방향을 가르고, 지관의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지향을 보여준다.

『진주소씨대동보』 선조유사(先祖 遺事)에 따르면, 별명당의 수용자는 소세양의 조부인 판서공 소효식(蘇效軾)과 증조모 한씨이고, 후손 가운데 가장 출세한 인물인 소세양은 별명당의 발복자이다. 『진주소씨대동보』 「판서공유사(判書公遺事)」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 ① 공(蘇禕)이 졸하였을 때 큰아들 효식(效軾)은 아홉 살이었다. 부인 한씨는 길지에 안장하려고 어린 아들과 명당을 찾아 1년여를 돌아다녔으나 구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기도 하였으며 夫君 묘소 옆에서 시묘살이를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禮節과 法道를 엄격히 하였다.

3 『진주소씨대동보』 「遺事」 경자보(1960년 간행)에 따르면, 진주소씨 28세조 참판공 蘇禕는 생년은 미상이나 졸년은 단기 3779년(서기 1446년) 병인년(丙寅年)이며, 묘는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용수산으로 부인과 쌍분이다. 진주소씨 족보 編修의 역사를 살펴보면, 월주공 소두산이 편한 경술보(1670년) 이후 정묘보(1747년), 임자보(1852년), 병오보(1906년), 을해보(1935년), 경자보(1960년), 신유보(1981년), 병자보(1996년)가 있다. 선조 유사는 1960년에 발간된 경자보부터 자세히 기록되었다. 경자보 발간사에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어 국한문혼용 신활자로 유사록을 자세히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다.

- ② 그때 한씨의 侍婢의 남편인 金居士는 術數와 地理에 능통하면서도 아는 체하지 않고 은거 중이었다. 김거사는 한씨의 貞烈과 아들 效軾의 효성에 감동하여 완주 이서 용수산의 吉地를 잡아주었다. 김거사는 용수산이 자손대대로 정승판서가 나올 길지이나 땅벌(土蜂)이 살고 있는 혈이라서 땅을 파면 地官이 벌에 쏘여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점을 해주었다.
- ③ 한씨와 아들 효식은 김거사에게 묘혈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과 땅을 팔 시간을 받은 후에 김거사에게는 일찍 돌아가 숨으면 될 것이라 하고 시간 여유를 갖고 땅을 팠더니 과연 한 말(一斗) 남짓 벌이 쏟아져 나왔다.
- ④ 김거사가 막 집에 당도하여 숨으려는 순간 김거사는 쫓아온 벌에 쏘여 죽고 말았다.
- ⑤ 소식을 들은 한씨와 아들 효식은 죽은 김거사를 몸소 장사지내주고 그의 처와 아들들을 良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 ⑥ 그 후 效軾은 물론 자손들이 登科하여 揚名하였고 특히 曾孫 世良은 司諫院 大司諫에, 世讓은 左贊成과 兩館 大提學에 올랐다. 이 묘소는 蜂明堂 또는 벌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다.(이하 <대동보의 벌명당>으로 칭함)

<대동보의 벌명당>은 ① 한씨와 판서공의 장지 찾기, ② 김거사의 자발적 명당 소점과 판서공과 한씨의 벌명당 획득, ③·④ 벌떼에 쏘인 김거사의 죽음, ⑤ 김거사 처자의 면천, ⑥ 소세양 형제를 비롯한 후손 발복으로 구성된다. 재주를 숨기고 숨어 살던 김거사가 자발적으로 세상에 다시 나와서 묘혈을 소점한 것은 한씨와 아들 효식의 효열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김거사는 자신이 벌에 쏘여 죽을 것을 알면서도 소씨 가문을 위해서 명혈을 소점해 줌으로써 양반가의 유교적 도덕윤리 실천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자손대대로 정승판서가 나올 길지”인 벌명당의 발복으로 양명한 후손들 가운데 소세량과 소세양 형제가 가장 특출났고, 특히 소세량은 실제로 판서에 올랐으니 명당의 효험을 입증한 인물인 셈이다. 이처럼 소세량과

후손들이 명당 발복으로 입신양명하였으니 소씨 가문의 입장에서 김거사의 죽음은 가문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고, 판서공과 한씨가 김거사의 처자(妻子)를 면천시켜 준 것은 김거사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대동보의 별명당〉은 소세양 선조의 명당 획득담이자 소세양으로 대표되는 후손의 발복담이다. 가문의 관점에서 보면 〈대동보의 별명당〉은 명문가가 갖추어야 할 물질 기반인 명당과 인적 기반인 훌륭한 인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판서공과 한씨가 명당 수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효열(孝烈)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명당이란 그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도덕윤리를 갖춘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말해준다. 성숙한 도덕윤리를 갖춘 선조의 명당 획득은 후손의 발복담으로 연결되고, 별명당의 발복을 받은 소세양은 명문가로서 진주소씨의 위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대동보의 별명당〉은 가문 내에서 구전도 되고 있다.⁵ 설화 전승 주체인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족보의 선조 유사는 곧 가문의 역사이므로 별명당 전설 이야기 ‘하기’는 가문의 역사를 통해 가문의식을 고양하고 가문의 위상을 재인식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별명당 전설의 두 번째 유형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소세양 삼형제의 장지 잡기’이다. 별명당 전설 첫 번째 유형인 〈대동보의 별명당〉이

4 이서 선산 묘역에는 소세양의 증조부인 참판공 蘇禧의 묘 옆에 주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봉분이 하나 있는데 가문에서는 이를 김거사의 묘라고 하여 김거사 명당 소점을 사실화하고 있다.

5 「진주소씨와 별명당」, 서해숙 외, 『우리전주 전주설화』(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2000), 159-163쪽. 설화의 구연자 소병연은 진주소씨이다. 필자는 익산과 완주 지역 진주소씨 종친회 분파의 시제 현장에서 실제로 〈대동보의 별명당〉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2019년 4월 6일과 7일 이서 화수회(花樹會) 주관 진주소씨 시제 준비 및 봉행 참관, 2019년 4월 13일과 14일 익산 화종회(華宗會) 주관 진주소씨 시제 준비 및 봉행 참관.

진주소씨 족보에 선조유사(先祖 遺事)로 처음 기록된 것은 1960년에 발간된 경자보이다. 근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유사 기록은 구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터인데 구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우야담』 소재 벌명당 전설로 보아 늦어도 17세기에는 이러한 유형의 전설이 구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어우야담』 소재 벌명당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蘇世讓 삼형제가 부친의 묘지를 정하려고 이웃에 사는 신통한 地師에게 소점을 의뢰하고 지사가 점쳐준 묘혈을 장지로 쓰기로 한다.
- ② 그날 밤 소세양의 막내아우가 지사의 집에 가서 지사 부부의 대화를 엿듣는다. 地師의 아내가 소씨 집안 묘지는 길지로 잘 정했는가 물으니, 地師가 진정한 명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를 파면 소점해준 자가 죽게 되는 땅이라 남쪽으로 몇 자 떨어진 곳을 알려 주었다고 은밀히 말하면서, 땅속에는 벌 세 마리가 있어서 그곳에 묘를 쓰면 삼형제가 모두 높은 벼슬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③ 막내아우가 집에 돌아와 엿들은 이야기를 형들에게 고하고, 이튿날 소씨 삼형제는 묘혈을 북쪽으로 대략 몇 자 떨어진 곳으로 옮겨 썼다.
- ④ 地師는 묘혈을 옮기면 크게 흉할 것이니 안 된다고 하지만 소씨 삼형제는 어젯밤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 ⑤ 지사는 묘혈 자리를 파면 벌 세 마리가 있을 것인데 땅속의 벌 세 마리

6 1683년에 간행된 반남박씨 두 번째 족보 『계해보』에는 始祖에 대한 인식 강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호장공 박응주의 묘(나주 반남면 신촌리 소재)에 대한 설화 「호장공복장속전(戶長公卜葬俗傳)」이 실려 있다. 권기석, 「반남박씨(潘南朴氏)의 修譜 이력과 편집 방식」, 『한국계보연구』 7권(2017), 158-165쪽 참조. 「호장공복장속전」의 내용이 『어우야담』 소재 벌명당 전설과 상당히 유사하고, 동래정씨와 청풍김씨 등 다른 가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벌명당 전설은 17세기 이래로 명문 가문 만들기 서사로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중 한 마리도 날아오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한 마리를 놓치면 형제 중 한 사람이 귀하게 되지 못하고, 두 마리를 놓치면 두 사람이 귀하게 되지 못할 것이며, 소점해준 자신 또한 죽게 되므로 그 자리를 취하더라도 자신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穴을 열라고 당부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 ⑥ 소세양 삼형제가 묘혈을 열었더니 과연 큰 벌 세 마리가 있어서 즉시 땅을 덮으려 했다.
- ⑦ 하지만 그 중 한 마리가 나와서 地師를 뒤따라가 地師가 집에 들어서기 전에 지사를 쏘아서 지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 ⑧ 그 묘혈에 묘를 쓰고 소세양과 그 형은 높은 벼슬을 했으나, 막내아우는 끝내 현달하지 못했다.
- ⑨ 傳에 이르기를 “일을 도모함에 부인에게 미쳤으니 죽게 됨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지사를 두고 이른 말인가.⁷(이하 <어우야담의 별명당>으로 칭함)

<어우야담의 별명당>은 소세양이 별명당 발복으로 출세했다는 민간의 풍수담을 유몽인이 흥미롭게 재창작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갖추어 잘 짜여 있고 논평을 통해 작가의 독특한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소세양이 별명당의 수용자이자 발복 당사자이고, 소세양 삼형제와 지사

7 <소세양 삼형제의 장지 잡기>,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돌베개, 2006), 286쪽; <소세양의 장지>, 이월영·시귀선 역, 『어우야담』(한국문화사, 1997), 567-568쪽. 전자는 만종재본을, 후자는 장서각본을 옮긴 것으로, 소세양 삼형제가 아버지의 장지를 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평설로 마무리되는 같은 내용이다. 장서각본에는 또 다른 한 편의 별명당 전설 <명당을 쓴 소세양 집안>(권1, 139쪽)이 나오는데 소세양의 선친이 아버지의 장지를 찾는데 상지법을 알아서 지사가 잡아 준 묘혈이 명당이 아님을 알고 지사의 소점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관이 땅에서 나온 벌에 쏘여 죽고 그 후 소세양과 자손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다. 여기서는 설화적 흥미 요소를 두루 갖추고 편찬자의 논평을 덧붙인 <소세양 삼형제의 장지 잡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외에 지사의 아내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지사는 소세양 삼형제와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문제적 인물로 이 설화의 실질적 주인공 역할을 한다. <대동보의 별명당>이 소세양 가문의 명당 획득담이자 발복담이라면, <어우야담의 별명당>은 소세양 삼형제가 명당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관의 활약과 비중이 커 지관담의 성격을 띤다. 지관과 대결을 벌이는 <어우야담의 별명당>의 소세양은 부귀영화를 열망하는 사대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어우야담의 별명당>에는 지관과 소세양 삼형제의 대결구도, 옛듣기, 금기와 위반, 벌 세 마리의 상징 등 여러 가지 설화적 흥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⁸ 지관은 별명당을 소점한 자가 벌에 쏘여 죽는다는 기밀을 알고 명당의 위치를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주면서 적극적으로 죽음을 피해 보려 한다. 진짜 명당을 잡으려는 소세양 삼형제와 진짜 명당을 알려주면 죽게 되는 지관의 대결구도에서 소세양 삼형제가 지관에게 속지 않아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소세양의 막내아우가 지관 부부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 진실을 형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지관은 소세양 삼형제에게 벌 세 마리 중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 자신이 집에 간 뒤에 묘혈을 파라, 두 가지 금기를 주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벌 한 마리를 놓쳐 명당 발복이 불완전해지고 지관도 벌에 쏘여 죽는다. 지관과 소세양 삼형제의 대결에서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자가 아니다.

<어우야담의 별명당>에는 다른 유형의 별명당 전설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사의 아내가 나온다. 유몽인은 평설에서 “계획을 부인에게 알리면 마땅히 죽게 된다”라는 『춘추좌전』의 구절을 빌어 지사의 죽음은 부인에게 비밀을

8 김현룡은 이 설화의 두 가지 요소가 후대 설화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즉 풍수들이 명당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자기 비술을 믿고 거만하게 행동하기도 했다는 것과, 풍수가 명당을 알려주는 것은 자연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므로 재앙을 당하거나 거짓말에 대해 보복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270-271쪽.

발설한 탓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역사를 언급하여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듯하다. 지사의 부인은 남편에게 소씨 집안 명당 소점을 잘 했는지 묻는 작은 역할밖에 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남편에게 발설하도록 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부인이란 가족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는 존재이고, 비밀의 잠재적 폭로자라는 부정적 여성 인식이 담겨 있다. <여자는 남>이라는 구전설화의 인식과 상통한다. 이러한 부정적 여성 인식이 유몽인의 여성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성 중심적 가치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⁹

별명당 전설의 세 번째 유형은 완주지역에서 구전되는 <별명당과 발산소씨>이다. 명당 수용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자식이 없는 효성 지극한 부부이며 소세양이라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지만, 익산 발산소씨의 사실상 시초가 소세양 칠형제라는 점에서 소세양 관련 설화로 함께 논의할 만하다.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삼 백여 년 전에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산정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았는데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좋은 못자리에 부모를 모시고자 기도를 했다.
- ② 어느 날 도승이 찾아오고 부부는 정성껏 도승을 대접한다.
- ③ 도승이 답례로 산세를 살펴 별명당이라는 혈을 못자리를 소점해 주면서 묘를 쓴 후에 북쪽으로 30리쯤 떨어진 곳에 가서 살면 자손이 크게

9 유몽인은 다채로운 여성의 삶에 주목했고 여성의 진취성과 주체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도 다수이나 평설에서 남성 중심적 시각이 드러나는 것은 개인 인식의 한계이자 당대의 현실과 지배 윤리의 모순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혜경, 「於于野談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 樣相과 意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권 (2004), 293-295쪽.

변창할 것이라 한다.

- ④ 도승은 명덕봉의 명덕(별집)이 나오도록 봉우리 흙을 허물어 주라고 하면서 꼭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헤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 ⑤ 부부는 너무 기쁘고 급한 나머지 도승이 떠나자마자 별명당에 부모의 묘를 쓰고 서둘러 명덕봉 봉우리를 헐어 버렸다.
- ⑥ 그러자 벌떼가 쏟아져 나와 십 리도 못 간 도승을 쫓아가 쏘아서 도승은 죽고 만다.
- ⑦ 부부는 도승을 부모의 묘 옆에 묻고 도승이 일러준 대로 북쪽으로 삼십 리 떨어진 익산군 금마면에 가서 터를 잡고 살았다.
- ⑧ 부부는 도승이 예언한 대로 자식을 얻고 대대로 번창해서 거족을 이루었다. 이들이 지금의 익산 발산소씨이다.¹⁰⁾(이하 <이서 별명당>으로 칭함)

<이서 별명당>은 ① 효성 지극한 부부의 장지 찾기, ② 도승에게 적덕, ③ 도승의 명당 소점, ④·⑤ 금기와 위반, ⑥ 벌에 쏘인 도승의 죽음, ⑦·⑧ 부부의 이주와 번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심이 지극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던 부부가 도승에게 덕을 베풀고 그 보상으로 별명당을 획득하고 명당 발복으로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설화 전승층은 소씨가문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도승의 죽음을 가문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까지 보지 않고, 부부의 실명에도 관심이 없다.¹¹⁾ <이서 별명당>은 착하게 살고 덕을 베풀니 복이 오더라는 적덕과 보은, 자식이 없었던 부부가 자손을 얻고 번창했다는 결핍과 해소, 도승이 준 금기와 부부의 위반 화소 등이

10 <별명당과 발산소씨 전설>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 '역사·문화' 향토 자료실 '인물편'.

11 가문 밖에서 소씨가문의 별명당 획득을 부정적으로 본 이야기도 있다. 별명당 때문에 지관이 죽었고, 사람들이(또는 국가가) 소씨가문만 크게 번성하면 당해낼 수 없게 되니까 명당이 있는 선산 꼭대기를 편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삼봉 별명당 전설>, 황인덕 편, 『완주의 구전설화』(완주문화원, 2001), 55쪽.

두루 어우러진 적덕보은담이다.

또한 <이서 별명당>은 진주소씨 가문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내력담이다. 도승은 부부에게 묘혈을 소점해 주면서 도승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명덕봉 봉우리를 헐지 말라는 금기를 주고, 묘를 쓴 후 북쪽으로 삼십 리 옮겨가서 살면 번창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부부는 금기를 위반하지만 처벌받지 않고 도승의 조언대로 북쪽으로 삼십 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여 자식을 얻고 번창한다. 도승이 이주하라고 한 곳, 즉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에서 북쪽으로 약 삼십 리 떨어진 곳이 진주소씨 가문의 세거지인 익산 왕궁과 금마이다. 이 이주의 화소는 소세양의 아버지인 소자파가 완주 이서에서 익산 왕궁 발산리와 금마 도천마을 일대로 이주한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¹²

소세양의 아버지 소자파가 익산에 입향한 후 소세양 칠형제가 태어났으니 소세양 칠형제는 익산 ‘발산소씨’의 첫 주역이라 할 수 있다. 발산소씨의 시초가 사실상 소세양 형제들이고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소세양이다. <이서 별명당>에서 부부가 익산으로 이주하여 거족을 이룬 것처럼 실제로 소자파는 소세양 칠형제를 낳았고 또 그 후손에서 많은 문신과 학자가 나와서 당시 자손 내외와 증현손이 일백 명에 달하는 거족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서 별명당>은 완주의 진주소씨가 별명당을 획득한 후 익산으로 이주·정착하여 ‘발산소씨’(‘금마소씨’ 또는 ‘익산소씨’)로 일컬

12 소세양의 선대 중 완주에 처음 입향한 사람은 고조부 소천(蘇遷)이다. 소천은 정몽주의 문인으로 조선 초기에 선죽교의 변을 보고, 진위(현재 경기도 평택)에서 14세기 후반 妻鄉인 전주로 낙향하여 터를 잡았다고 한다. 익산 전주권으로 이거해 온 사람계 가문에 대해서 오경택, 「15-16세기 전주권 사족 사회 형성과 활동」, 『한국학논총』 36(2011), 141-221쪽 참조. 소천이 맨처음 정착한 곳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중에서는 이서면 이문리 산정마을에서 5km 떨어진 이서면 소평리로 추정하고 있다. 소자파가 완주 이서에서 처가가 있는 익산 왕궁으로 기반을 옮긴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아버지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있다.

어지는 명문가가 된 내력담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에서 별명당 전설의 세 유형을 고찰한 결과, <대동보의 별명당>은 가문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명당 획득담이자 발복담으로서 선조 유사의 역사적 사실화를 지향한다면, 지역 공동체에서 구전되는 <이서 별명당>은 가문 밖에서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적덕보은담 성격을 띤다. <어우야담의 별명당>은 상황 설정과 인물의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편찬자의 논평을 덧붙여 흥미롭게 꾸민 이야기로, 지관의 활약과 비중이 큰 지관담 성격을 띤다. 별명당 전설 세 유형의 특색을 몇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동보의 별명당>	<『어우야담』의 별명당>	<이서 별명당>
풍수담의 성격	명당 획득·발복담	지관담	적덕보은담
지관의 소점동기	한씨와 판서공의 효열에 감동	소세양 삼형제의 의뢰	부부의 덕에 감화
지관의 소점태도	죽음을 무릅쓰	죽음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	보은
지관의 죽음에 대한 관점	가문을 위한 희생	비밀누설의 대가	가문 번창에 기여
주요 전승층	진주소씨 가문	불특정 독자	전승지역 공동체
전승의 지향	역사적 사실화	흥미와 교훈	교훈과 감동
소세양의 위상	명당 발복한 가문의 인물	명당 발복자	발산소씨의 시초
별의 상징성	명당을 차지한 영물, 번영	소세양 삼형제, 부귀	번창과 풍요

별명당 전설은 별과 인간의 관계를 소재로 삼은 풍수담이므로 별의 상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 유형은 서사의 지향점에 따라 별의 상징성에 차이가 있다. 별명당의 본래 주인은 땅벌이고, 별명당을 장지로 쓰려는 인간들은 벌들에게는 약탈자이다. 벌은 독성과 공격적 집단성을 무기로 약탈자를 응징하는 습성이 있다. 벌이 기본적으로 자기 영토를 지키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하기에 때로는 인간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세 유형의 별명당 전설은 별명당의

원래 주인이었던 벌에서 새 주인인 인간으로 주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을 보여준다.

〈대동보의 벌명당〉에서 땅벌은 벌명당의 원래 주인이다. 김거사는 소씨 가문을 위해서 벌명당의 원주인인 땅벌의 터전을 빼앗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른다. 풍수설화에는 본래 명당의 주인이 짐승이거나, 짐승이 명혈을 알려주는 이야기 유형이 있다.¹³ 동물들은 명당을 잡아주기도 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응징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풍수설화는 동물과 사람,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의 산물이다. 〈대동보의 벌명당〉에서 벌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인 지관을 응징하는 신령스럽고 영험한 곤충이다.¹⁴ 또 벌명당을 획득한 후 진주소씨 가문의 후손이 벼슬하고 잘 되므로 벌은 가문의 번영을 상징한다.

〈어우야담의 벌명당〉에서는 벌 세 마리를 특정하여, 벌의 마리 수를 소세양 삼형제의 수와 등치시켰다. 지사(地師)는 땅속의 큰 벌 세 마리 중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고 한다. 그래야 삼형제가 모두 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므로 큰 벌 세 마리는 소세양 삼형제 혹은 삼형제의 부귀를 상징한다.¹⁵ 소세양 삼형제가 지사의 거짓에 속지 않고 벌명당을 획득하기는 하지만 벌 한 마리를 놓치는 바람에 막내아우는 현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물론 작가의 창의적 발상인데 소세양 형제의 실상과 닮은 부분이 있다. 소세양은 칠형제의 다섯째였다. 2남인 곤암 소세량은 대사간을 지내

13 호랑이, 사슴, 노루, 토끼, 꿩, 제비, 까치 등 영험한 동물이 명당자리를 알려주거나 인간이 이런 동물을 이용해 명당을 찾는 설화가 그 예이다.

14 토봉꾼들은 벌이 영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박혜령, 『강원도 인제의 토종벌과 토봉꾼』(국립민속박물관, 2014), 62쪽.

15 其穴有三靈虫 三昆季皆爲高品(구멍에 큰 벌 세 마리가 있어서 삼형제가 높은 품계에 오른다). 고려대본에서는 육형제로 나오기도 한다. 장서각본의 또 다른 벌명당 전설에서는 소세양 선친이 상지법을 알아 지관에게 속지 않고 벌명당을 획득한 후 소세양과 자손들이 부귀하게 된다. 각주 7) 참조.

고 5남인 소세양은 대제학을 지내는 등 높은 벼슬을 했지만 6남 세득과 7남 세신은 두 형에 비하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다. 한 부모 아래 난 여러 형제들은 각각 타고난 능력과 재주가 같을 수 없고 우열이 있게 마련이다.¹⁶ 유몽인은 별 세 마리를 소세양 삼형제의 상징으로 삼아 인간사의 이런 이치를 담아낸 듯하다.

〈이서 별명당〉에서 도승은 부부에게 별명당에 부모 묘를 쓴 후 명덕봉 봉우리를 헐어서 벌이 나오게 하라고 한다. 벌이 나와서 활동하게 한 후에 자식이 없던 부부는 자식을 얻고 대대로 번창하여 ‘발산소씨’라는 거족을 이룬다. 벌은 왕성한 활동력과 번식력을 가진 곤충이자 꽃에 열매가 맺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손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 명덕봉은 산봉우리가 마치 벌명덕(벌통 덮개)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화 전승층은 명덕봉 주변을 벌의 생태에 맞추어 물형론적으로 해석하고 명명하였다. 명덕봉 바로 앞의 날줄기를 화심날(또는 꽃날봉)이라 하고 그 밑에 있는 샘을 꿀샘(또는 젓샘)이라고 한다. 명덕봉 산봉우리를 헐어주어 흠에 막혀 나오지 못하던 벌이 나와서 꽃과 꿀을 찾아다니게 하였으니 별명당 수용자는 벌떼처럼 번창하고 흥하게 된 것이다.

16 장남 세온(世溫), 삼남 세공(世恭), 사남 세검(世儉)도 벼슬을 했는데 육남 세득(世得), 칠남 세신(世臣)은 낮은 품계에 머물렀다 한다. 삼남 세공은 어려서 중형 곤암 소세량을 좇아 면학하고 과거에 두 차례 응시하였다 낙방하여 이름을 널리 떨치지 못했는데 후에 숙부 기파와 함께 왜적을 정벌하여 수군첨절제사가 되었다 한다. 익산시, 『익산향토지』 3권(익산문화원, 2007), 744-745쪽.

Ⅲ. 애정담에 나타난 사대부 남성 소세양의 사랑과 성공

소세양과 함께 구전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다. 한 사람은 소세양과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진 기녀 황진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익산 금마 황각동에 살았다고 하는 노씨 가문의 처녀이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사랑 이야기는 임방의 시화집 『수춘만록』에 처음 기록되었다. 구전설화는 『수춘만록』의 일화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인(詩人) 황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대부와 기생의 연애담으로 강화되었다. 소세양과 혼담이 오갔지만 집안의 격차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자 자결했다는 황각동 처녀의 이야기는 익산에 한정하여 구전된다. 여기서는 기녀와 반가녀 두 여인이 등장하는 애정담을 통해 설화 전승층이 조선 사대부 소세양의 사랑과 결혼을 어떻게 전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이야기는 조선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널리 회자된다. 사랑 이야기의 근거를 제공한 『수춘만록』의 내용을 보자.

- ① 양곡 소세양이 젊은 시절에 심지가 굳다고 자부하면서 여색에 빠지는 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곤 하였다.
- ② 양곡이 송도 기생 진이의 재색이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벗에게 진이와 30일을 지내고 즉시 헤어져 다시는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며 하루라도 더 머문다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고 호언장담했다.
- ③ 양곡이 송도에 가서 진이를 만나보니 과연 뛰어난 여인이었고 그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며 한 달 기한으로 머물렀다.
- ④ 헤어지기 전날 소세양이 진이와 함께 개성 남쪽 누대에 올라 이별의 술잔을 나눌 때 진이는 조금도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빛이 없이 시 한 수 지어 바치기를 청하였다.

- ⑤ 진이가 읊시 한 수를 써서 올리자 소세양이 그 시를 읊어보고 감탄하여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며 다시 머물렀다.¹⁷

이 일화는 30일 만에 떠나려는 소세양을 황진이가 시로써 감동시켜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는 내용이다. 소세양을 시로써 휘절시킨 황진이의 문학적 재능과 호협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황진이의 소세양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이별 후에도 그리워하는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황진이의 시 구절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황진이의 이러한 이별 노래는 사대부 남성의 대상적 존재로서 기녀가 고객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황진이의 내면에서 우러난 진실한 사랑 노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¹⁸ 소세양과 황진이의 만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두 사람의 만남과 인간적 관계의 진상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구전설화에서 소세양과 황진이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회자된다.

황진이와 소세양의 사랑 이야기는 18-19세기 문헌들의 서승에 기대어 구전이 더욱 견고하게 확산되고 오늘에까지 이어진다. 조선후기 시화집 『동국시화회성』 권21, 문헌설화집 『기문총화』, 김택영의 인물전기집 『승양 기구전』 「송도인물지」 등에도 『수춘만록』과 거의 같은 내용의 일화가 나온다.¹⁹ 두 사람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는 구전이 문헌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17 「황진이의 시에 감복한 소세양」, 임방 저, 김동욱 역, 『국역 水村漫錄』(아세아문화사, 2001).

18 노인숙, 「황진이 한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23권(2001), 229-230쪽; 정병설, 「사랑타령일랑 집어치워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조선여성의 일생』(글항아리, 2010), 140-163쪽. 정병설은 기생의 남성애에 대한 연정 노래가 남성중심적 사고에 충실한 노래이며, 기녀의 신분과 직업 정신의 산물이었다고 한다.

19 홍중인(1677-1752)이 편찬한 『동국시화회성』의 필사연도는 미상이다. 『기문총화』는 계서(溪西) 이희평(李羲平)이 1828년에 편찬한 『溪西雜錄』을 중심에 두고 1833년

다시 구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소세양이 보통 여인이 아니고 보통의 기녀도 아닌, 우리 여성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는 황진이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 속에는 천재적 시 재능과 미모를 갖추고 대담한 성품으로 당대의 남성을 호령하던 ‘여인’ 황진이와 그녀의 선택을 받은 사대부 ‘남성’ 소세양이 있다. 황진이는 지성, 미모, 예술적 재능을 갖추고 의리, 척당불기의 성격으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수많은 풍류객들이 연모하는 신비로운 여인이 되었다.²⁰ 이렇게 남성의 사랑을 부르는 완벽한 여인의 아이콘 황진이는 야사, 야담, 일화, 전설 등의 전언들을 통해 당대 사대부 남성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소세양은 바로 그러한 시선의 주체인 사대부 남성이다.

소식적에 “여색에 빠지는 자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큰소리쳤던 소세양은 황진이의 이별시에 무너지며 친구들과 약속을 어기고 급기야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세양의 모습은 일면 웃음을 유발하지만 풍자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세양은 장담했던 단호한 이별을 하지 않아서 ‘남자’ 되기는 포기하는 대신 여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풍류남’으로 재탄생한다. 소세양이 말한 ‘남자’란, 유교의 이상적 인간인 도덕군자 또는 성인군자를 뜻할 것이다. 성리학적 이념에서 보면 사대부 남성에게 미색은 위험하며 여성에게 초연한 인간이 성인이고 성숙한 인간이다. 이처럼 사대부 남성은 여인과 연애에 대한 욕망 절제를 미덕으로 요구받았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풍류라는 이름으로 기생과 함께 어울리며

에서 1869년 사이에 집성된 야담집이다. 김택영의 『송양기구전』은 1896년 간행되었고, 1903년 개정 간행되었다. 김택영 저, 김승룡 편역, 『松都人物志: 崧陽耆舊傳외』(現代實學社, 2000) 참조.

20 한규무,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인간연구』 9(2005), 58-61쪽. 이 글의 필자는 황진이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허용되었다.²¹

기녀는 사대부 남성의 놀이문화에서 여흥을 책임지고 사대부 남성과 풍류를 공유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대부의 풍류 문화에서 기녀는 사대부가 욕망하는 하나의 이상적 여인상으로 그려진다.²² 이상적 여인으로 신비화된 황진이도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 남성의 시선으로 구축된 것이다. 기생이 양반 식자층을 농락하고 위선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민중적 취향에 더 가깝지만, 소세양의 언행 불일치와 훼손은 회화하나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풍류로 수용된다.²³ 이것은 사대부 남성 소세양과 조선 최고 기녀 황진이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구전시킨 전승층의 시선이 사대부 양반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상층의 사대부 남성과 중하층의 남성의 시선이 공명하는 지점에서 소세양과 황진이의 연애담은 상하 계급을 막론하고 남성 주체들의 향유물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소세양과 황진이의 사랑 이야기 전승에는 가문과 지역도 일조하고 있다. 황진이가 멋과 사랑을 이는 매력적 여성의 대명사로 시대적 평가와 위상이 변모하자 세간의 관심이 '사랑'에 집중되고 소세양과 황진이의 관계도 사랑 이야기로 수렴된다.²⁴ 진주소씨 가문에서도 황진이와 소세양의 관계를 연애담으로 전승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이들의 관계를 외면했

21 송희경, 『사대부의 만남과 풍류의 장』(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2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사대부의 기녀 판타지」, 『東方漢文學』 제64집(2015), 53-90쪽.

23 좀 더 민중 취향에 가까운 이야기는 소세양과 황진이의 만남에 대한 어희담이다. 소세양이 던진 한 글자 편지 '류(榴)'에 황진이가 '어(漁)'라는 한 글자로 화답했다는 이야기이다. 榴는 碩儒那無遊(석유나무류), 즉 학식 높은 선비가 왔는데 어찌 놀지 아니 하는가라고 소세양이 추파를 던졌더니 황진이가 漁, 즉 高妓自不語(고기자불어) 명성 높은 기녀는 놀자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이야기이다.

24 소세양의 고향 익산에서는 소세양과 황진이의 관계를 지역 홍보에 이용하면서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관계라 하고, 소세양을 황진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선비라고도 한다. 『익산의 자랑거리 64선 스토리텔링』 중 '송도삼절 황진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 미륵산 도천마을의 소세양' 참조.

다가 점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집이나 가문의 어떤 기록에도 황진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당초에 황진이와의 연애 관계는 가문의 입장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이다.²⁵ 오늘날 진주소씨 가문의 입장에서 황진이는 소세양을 매력적인 사대부 남성으로 돋보이게 하는 여성이고, 그래서 황진이와 소세양의 연애담 전승에도 적극적이다. 30일간의 만남을 애뜻한 사랑이라고 하고, 황진이의 시에 감동을 받고 더 머무른 소세양의 태도에서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남자다움을 읽는다.²⁶ 가문 내에서 양반이 기녀에게 망신당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사대부 양반 소세양이 여색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익산지역에 한정해서 전승되는 <황각동 처녀>는 실패한 애정을 모티프로 한 애정담이다. 황각동 처녀는 소세양과 혼담이 오갔으나 집안의 격차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자 황각동 바위에서 투신한 노씨 집안의 여인이라 전해진다. 『금마지(金馬志)』에 가경(佳景)으로 소개된 황각동은 익산 미륵산과 용화산 사이에 있는 경치 좋은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노씨와 황씨가 많이 살던 부자마을이었다고 전한다. 노씨 처녀의 존재가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 할 것이다. <황각동 처녀>는 몇 개의 각편이 전해지므로 그 내용을

-
- 25 황진이의 <詠半月>과 소세양의 <新月>은 오언절구 한시로 詩想이 매우 흡사하다. 심규정은 소세양 문집에서 이 작품만 유일하게 ‘七歲作’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황진이작으로 알려진 이 시가 사실은 소세양의 시라고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이고 황진이와 엮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심규정, 『陽谷 蘇世讓의 生涯와 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116-120쪽. 이가원은 황진이의 한시로 ‘만월대회고’와 ‘영반월’ 2수를 소개한 滄江 김택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古唐詩인 <영반월>이 황진이 작으로 오인된 까닭은 황진이가 이 시를 애송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하였다. 이가원, 『한국명인소전』, 『李家源全集』 9권(정음사, 1986), 62-63쪽.
- 26 소세양이 7세 때 지은 <新月>과 황진이의 <詠半月>이 놀랍도록 흡사한 것은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해준다고도 한다. <소세양과 황진이의 연애>,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익산시 편(역락, 2017), 411-413쪽.

살펴보기로 하자.

[각편1]: <집안에서 혼사를 반대한 총각이 급제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바위에서 투신한 황각동 노씨 처녀>

- ① 옛날 황각동이 노씨 집성촌이었는데 노씨 집안의 처녀가 금마 어디 사는 사람을 사모했다.
- ② 처녀가 사모한 상대가 속은 쌍놈이라 해서 집안에서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 ③ 처녀가 사모한 사람은 한양에서 과거급제해서 벼슬을 받아 성공해서 내려왔다.
- ④ 노씨 집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었는데 한양에서 과거급제해서 내려오는 길이 훤히 보이는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 ⑤ 그 바위를 등잔바위라고 부른다.²⁷

[각편2]: <혼사를 거절당한 후 공부에 매진하여 서울에서 벼슬해 내려오는
소세양을 보고 그에게 시집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자결한 처녀>

- ① 도내골 살던 소세양이 젊어서 혼사 얘기가 있었던 처녀의 집에서 딸을 안 주겠다고 해서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
- ② 소세양이 벼슬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벼슬을 했다.
- ③ 벼슬을 해서 행렬을 내려오니 혼사를 반대하던 집 처녀가 그리로 시집을 가지 못한 것이 원한이 되어 담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²⁸

27 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한 '익산시 구술사 디지털 아카이브'(www.isoh.or.kr), 금마면 황각마을, 2012년 채록 내용.

28 <소세양에게 시집 못 가서 죽은 처녀>,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익산시 편(역락, 2017), 64-65쪽.

[각편1]에는 [각편2]를 합해서 보면, 금마 황각동에 노씨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노씨 처녀의 집안과 소세양 집안 사이에 서로 혼담이 오갔고, 처녀는 소세양이 마음에 들어 연모하였으나 집안(또는 신분)의 격차로 혼사가 성사되지 않는다. 소세양은 노씨집안 반대로 혼사를 거절당하자 더욱 분발하여 서울에서 벼슬을 해 내려오고, 노씨 처녀는 소세양과 연분을 맺지 못한 한으로 바위에서 투신하여 자결한다. 노씨집안에서 혼사를 반대 한 이유는 상대가 근본이 쌍놈이라서([각편1]), 또 소세양이 혼사를 거절당하고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 벼슬을 해서 내려온다고 한 것을 보면 노씨집안과 견줄 만한 문벌이 아니어서였다([각편2]). 진주소씨 가문에서 전승되는 [각편3]에서 혼사장애의 내막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

[각편3]: <익산의 권세가 노씨집안에게 혼사 거절당하고 분발하여 출세한 소세양>

- ① 소씨 집안은 완주 이서에서 익산으로 막 이사를 한 때라서 세력이 미약해서 노씨 집안의 형편과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 ② 소세양이 과거 급제 전에 익산의 권세가였던 노씨 집안의 규수와 혼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소세양의 아버지가 그 집에 혼담을 넣었으나 거절당하고 노씨 처녀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
- ③ 그 후 소세양이 한양에서 대과 급제를 하여 금의환향하였고 여산에서부터 행차를 해서 내려왔다.
- ④ 다른 세도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가 청상과부가 되어 친정에 와 있던 노 규수는 출세해서 내려오는 소세양의 행차 광경을 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대들보에 목을 뺐다고 한다.
- ⑤ 소세양은 그 뒤로 계속 벼슬이 올라가고 노씨 집안은 몰락해 가기 시작하더니 어쩔 수 없이 익산을 떠나 옥구 김제 쪽으로 떠났다고 한다.²⁹

29 <소세양과 혼사가 깨진 노규수>,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익산시 편(역락, 2017).

조선사회에서 양반가 규수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하여 혼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가문이나 집안 형편이나 신랑에 대한 소문 따위를 참작해서 집안에서 부모가 골라주는 상대와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으므로 [각편1]과 [각편2]에서 황각동 처녀가 원하는 상대와 혼인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처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혼인풍습의 모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다.³⁰ 그런데 이 설화는 자결한 처녀의 원혼설화로 전개되지 않고, 소세양이 더욱 분발하여 가문을 일으키는 성공담으로 전개된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서사화한 것이 진주소씨 가문에서 전하는 [각편3]이다. [각편3]은 유력 가문과의 혼반(婚班) 형성에 실패하고 자력으로 출세하여 가문의 중흥을 이룬 소세양의 능력과 가문 내 위상에 초점을 두었다.

황각동 처녀의 노씨 집안과 소세양의 진주소씨 집안 간에 혼담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금마지』³¹에 따르면 익산 금마의 안동 노씨는 생원·진사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였고 음사로 높은 벼슬을 대대로 지냈다.³² 조선의 혼인은 형편과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혼인을 맺었기

409-411쪽.

30 박기현, 「자살 관련 설화의 특성과 인식 연구: 여성 자살담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40집(2015), 54-56쪽.

31 『金馬志』는 1756년(영조32) 익산군수 남태보(南泰普)가 편찬한 필사본 익산군읍지로 역사, 지리,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에 정보수집을 위해서 펜으로 필사한 책이 남아 있다.

32 고려시대 때 이부상서와 평장사를 지낸 후손 노우(盧祐)가 사실상 안동노씨의 시조이다. 노우의 손자 노영길(盧永吉)은 고려의 으뜸벼슬인 형부상서를 지냈고, 안동에서 김계로 이주하였다. 노영길의 아들 노승(盧崇)은 이부상서와 문하시중을 역임하였다. 이들의 후손들은 김계, 완주, 전주, 임피, 익산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왔다. '安東盧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금마지』에 따르면 판의금부사를 역임한 노담(盧湛)의 아들 盧允弼(노윤필)이 음사로 부안현감과 통정대부를, 노윤필의 아우 노윤정(盧允正)이 정3품 형조 참의를 지냈고, 노윤필의 아들 노우현과 노윤정의 아들 노인석이 현감을 지냈다. 남태보 편저, 이의강 외 역, 『金馬志』(익산시,

때문에 부부는 문화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입장이 비슷했다. 가문의 형편을 따지는 이유는 부와 권력의 세습에 있었다. 특히 명망가나 부유한 가문일수록 부와 명예,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켰기 때문에 양쪽 집안의 형편을 더욱 따졌다.³³ 이렇게 비슷한 집안끼리 혼인하는 관행이 있어서 [각편3]이 전승하는 바와 같이 세력이 약한 진주소씨가 안동노씨와 의혼 단계에서 혼인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익산에는 “금마에서는 전주이씨가 많이 살아도 진주소씨가 실세”라고 하는 말이 있다. 진주소씨가 익산 왕궁과 금마 일대에서 유력한 집안이 된 것은 소세양 형제들이 출세한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 노씨집안의 혼인 거절은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조선 초까지 소씨 가문의 관계(官界) 진출은 미미했다. 소세양 가문이 부친 소자파까지만 해도 주로 무관을 배출했고, 소자파의 부인 개성왕씨도 개성에서 남하하여 정착한 집안이므로 익산에 기반이 있을 수 없었다. 소세양의 조부 소효식이 한성부 판윤(정2품)을 지내기는 했지만 안동노씨와 격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각편3]에서 보듯이 소씨가문은 양혼을 통해 가문의 격을 높이고 혼반(婚班)을 형성하고자 시도했던 듯하나 성사되지 못하였다.³⁴ 결국 소세양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노씨집안 사람들보다 더욱 출세하고, 소세양 형제들의 출세를 발판으로 소씨가문은 익산에서 번영을 누린다. 위세가 등등하던 노씨집안과 혼담 당사자가 몰락했다는 결말은 소세양 가문을 무시하여

2019), 123-124쪽. 노윤필에 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과 「성종실록」 참조.

33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정진영, 『혼인, 세상을 바꾸다: 조선시대 혼인의 사회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4 소세양은 16세에 승문관교 조호(曹浩)의 딸 창녕조씨와 김제에서 혼인을 했고, 41세(1526년)에 부인과 사별하였다. 부인의 묘비명에 따르면 본처소생 1남 5녀(신도비에 따르면 1남 3녀), 소실소생 2남 1녀를 두었다. 「정경부인왕씨묘비문기」 『익산향토지』 3권, 790쪽.

혼담을 거절했던 태도에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기녀와 소세양의 관계에서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인 군자에게 금지된 욕망을 탐하는 연애담이 구전된 반면, 유산상속의 권리를 가진 반가녀와의 관계에서는 혼인을 통한 가문의 격상을 기대하여 혼사담이 구전되었다. 기녀 황진이와 반가녀 노씨 두 여성과 소세양의 관계를 다룬 애정담 유형의 설화를 통해 설화 전승층이 전하는 사대부 남성 소세양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대부 남성이 혼인 제도에서 자유로운 기녀를 대하는 방식과 혼인으로 가문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반가녀를 대하는 방식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중성에 기반하여 소세양은 기녀와 애절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자, 가문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던 혼사장애를 딛고 자신의 노력으로 출세하여 가문의 중흥을 이룬 성공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IV. 지혜담을 통해서 본 문제해결자로서의 소세양

소세양 관련 설화 중에는 소세양의 재치와 지혜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다. <소세양의 재치>, <신동 소세양>,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 <원귀가 된 젊은이의 한을 풀어준 소세양>, <여인 혼령들을 만나 원혼을 풀어준 소세양> 등이 그것이다.³⁵ 본 장에서는 소세양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는 지혜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가 유발되는 지점과 주인공의 문제해결방법에 따라 소세양 지혜담은 지략담과 신원담으로 나뉘볼 수 있다.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은 소세양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중국에

35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13 익산시 편(역락, 2017).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면서 시문 외교를 펼쳤던 실제 이력에 지역의 명물이 합쳐진 민중 취향의 지략담이다.³⁶ 신원담은 주로 가문 내에서 전승되며 예비 사대부 소세양이 원귀의 원혼을 풀어주어 소세양을 유교적 인간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서사 전략을 취한다.

익산지역에서 전승되는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의 내용을 살펴보자.

중국 사신들이 소세양의 글씨와 문장에 반해서 조선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중국의 것을 자랑해대니, 부풀려진 자랑에 자기도 질세라 그 사람들 기를 죽이려고, 우리 고장에는 얼음이 녹지 않는 빙교(氷橋)가 있다, 잘라도 계속 새순이 돌아 나오는 소나무인 읍송(筍松)이 있다, 일 년에 세 번 꽃이 피어 밤이 열리는 삼률(三栗)이 있다. 나중에 중국 사신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거기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실제로 사신이 올 줄 몰랐던 소세양은 거기는 지금 피질이 만연한데 그래도 가겠다고 안내하겠다고 했더니 사신들이 아쉬워 하며 돌아갔다.³⁷

이 유형의 설화는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물을 자랑하는 과장과,

36 소세양은 1521년 36세 때 원접사 이행(李衍)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아 시문 응대를 잘 하여 문명을 떨쳤다. 1533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28일까지 중국 황태자의 출생을 하례하기 위해 진하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1536년 54세에 원접사로 중국의 시인들과 교류하여 서로 창수하는 일이 잦았다. 소세양은 뛰어난 문명으로 중국 황제의 극진한 대우를 받고 이로 인해 나라의 위신을 크게 선양, 개인적으로 중국 선비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문인으로서 면모를 보인다.

37 익산지역에서는 익산의 진기한 세 가지 명물을 '益山三奇' 혹은 '金馬三奇'로 일컫는다. 박영준 편, 『金馬三奇』, 『한국의 전설』 8권(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209-210쪽; 홍석영, 『陽谷 蘇世讓攷: 그의 生涯와 文學』, 『文理研究』 제1권(1983), 22-36쪽; 홍석영, 『金馬의 三奇』, 『양곡선생실기』(양곡선생문학비건립후원회, 1999), 299-300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 익산시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지역정보포털 향토자원 www.oneclick.or.kr에 대동소이한 내용의 설화가 실려 있다.

채치있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지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세양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인들의 허풍스러운 중국 자랑에 지지 않으려고 중국에는 없을 법한 조선의 세 가지 명물 ‘금마삼기(金馬三奇)’를 자랑하여 중국인의 허풍과 자랑을 통쾌하게 되갚아준다. 허풍과 자랑이 대단한 중국 문인들조차 터무니없다 하자 소세양은 직접 조선에 와서 진위를 확인하라며 눈알 빼기 내기를 제안하기도 한다.³⁸ 그런데 소세양의 허풍과 자랑을 들었던 중국인들이 조선에 사신으로 오게 되고 ‘금마삼기’를 보러 익산에 오겠다고 하자, 소세양은 그곳에 지금 괴질이 만연한데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안내하겠다고 채치 있게 말하여 중국 사신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자신의 허풍과 과장이 탄로날 위기를 모면한다.

소세양의 허풍과 과장은 건달형 인물을 포함하여 지략담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주특기와 다를 바 없고,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도 민중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자국 자랑에 맞서기 위해서 소세양이 자랑한 ‘금마삼기’인 읍송, 삼률, 빙교는 현실에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아서 허풍스러운 중국 문인들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고 허황한 것을 나타낸다. 장난과 허풍이 도덕성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자국 문명에 대한 자긍심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허풍과 과장은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지략담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아이지혜담에서 모방에 익숙한 아이들이 어른의 부당한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듯, 소세양은 중국인의 허풍에 더 큰 허풍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금마삼기’가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금마삼기’는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빙교를 제외하고는 지리지와 읍지에 익산의 명물로 소개되었거나 조선의 명물로 알려진 것들이다.

38 지역정보포털 향토자원 www.oneclick.or.kr 참조.

삼률은 익산의 당산(唐山)에 있었다 하고,³⁹ 잎이 베어도 계속 돌아나는 소나무는 경주에 있었다고 한다.⁴⁰ 금마삼기 중 빙교 대신 부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부석 역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익산 금마의 명물이다.⁴¹ ‘금마삼기’는 중국의 명물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조선 명물을 대표한다.⁴² 그리고 설화 전승주체가 말하는 금마삼기가 명물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라도 자꾸 새로 순이 돌아나는 움송이 진짜 명물인 이유는 잘라내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예전처럼 다시 자라서 떨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³ 설화 전승층은 움송의 명물적 가치를 중국과 견주어 신기한 것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데 실용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의 폭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금마삼기는 중국인의 허풍과 자랑에 대응하기 위한 과장으로 상상된 명물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삶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고, 중국의 명물에 대응하여 조선 명물로서 자부심을 상징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금마지』에는 소세양이 중국 사신에게 자신이 건립한 태허정 경치를

-
- 3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 익산군 산천 조에 唐山에 대해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산에는 밤이 산출되는데 1년에 세 번 열린다. 그러나 딴 곳에 옮겨 심으면 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고, 『금마지』 「果木」에서도 같은 내용을 ‘三栗’이라 칭하였다.
- 40 『지봉유설』 2권, 622쪽. “다른 나무와 달리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으로 뿌리는 보호하기 때문에 잎을 자르면 다시 가지가 나지 않는데, 경주 栢栗寺 산기슭의 소나무는 베어도 다시 살아나니 무슨 이치일까.”
- 41 부석(浮石)은 익산 금마면 신용리 구룡마을에 있으며 뜬바위 또는 뜬돌이라고도 한다. 돌 위에 집채만 한 돌이 있는데 평소 윗돌과 밑돌이 딱 맞닿아 있다가 선달 그믐 자정이 되면 돌 사이가 떨어져 동네 사람들이 양쪽에서 명주실을 쥐고 두 바위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면 걸리지 않고 통과된다고 한다.
- 42 안장리, 「중국사신에 대한 서민층과 사대부층의 인식 비교」, 『역사민속학』 제33호 (2010), 385-413쪽. 조명 시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국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문장 수장을 통해 외교적 관계에 대처한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고, 서민들은 중국 사신을 물리치는 설화를 통해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하였다.
- 43 지역정보포털 향토자원 www.oneclick.or.kr 참조.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이 사대부의 경치 자랑에서 민중적 취향의 해학적 지략담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곡 소세양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반(館伴)이 되었는데,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묻자, 양곡이 말하기를 “천하의 승지는 우리나라만 한 곳이 없고 우리나라의 승지로는 호남만 한 곳이 없으며, 호남의 승지로는 익산만 한 곳이 없고, 익산의 승지로는 태허정(太虛亭)보다 나은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중국 사신이 한번 와서 감상하고자 하였는데, 양곡은 마을에 돌림병이 있다고 말하여 막았다.⁴⁴

『금마지』에 따르면 소세양이 중국 사신에게 실제로 자랑했던 것은 ‘금마삼기’가 아니라 자신이 건립한 태허정이라는 정자였다. 태허정 경치 자랑이 사대부의 취향이라면, 금마삼기 자랑은 민중 취향이다. 태허정 경치를 조선 최고의 명승이라 하여 중국의 경치에 뒤지지 않는 조선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신이 이를 구경하러 온다고 하자 돌림병을 이유로 그 발걸음을 막는다. 태허정 경치는 허황된 과장이 아니므로 굳이 사신을 막을 필요가 없지만 소세양이 사신의 방문을 막은 이유는 중국 사신의 방문이 일반 백성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사신을 물리치는 설화는 조선인의 자부심을 표출하는

44 남태보 편저, 이의강 외 역, 『金馬志』 「鄉里記言」(익산시, 2019), 164쪽. 소세양의 태허정 자랑은 1932년 『익산군지』에도 실려 있다. 『익산향토지』 3권(751쪽)에는 중국 사신(華使)을 화찰(華察)로 오역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오역이 나온 이유는 화찰이 소세양과 친분이 있었던 명나라 관리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소세양과 화찰의 친분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북경에 다녀온 신하들이 북경에 있을 때 화찰이 사람을 시켜 서간을 보내 소세양의 안부를 물었다.”(『중종실록』 39년 2월) 외 실록의 여러 곳에서 소세양과 화찰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가 많지만 이 설화의 경우에는 중국 사신의 접대에 드는 인적·물적 부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은 익산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소세양과 익산의 명물들 그리고 중국 사신 물리치는 이야기가 결합하여 생성된 지략담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세양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는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은 문제가 유발되는 지점이 중국과 조선의 대결구도에 기반하고 있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과장과 해학을 동원하는 민중취향의 이야기라면, 다음에 살펴볼 신원담은 문제 유발의 원인이 조선사회 내부에 있고 그 해결 방법이 진지하다. 소세양이 원귀의 원혼을 풀어주는 신원담 〈원귀가 된 젊은이의 한을 풀어준 소세양〉을 살펴보자.

소세양이 익산 왕궁면 용화리 동산사라는 절에서 과거 공부를 할 때였다. 그 절에서는 해마다 팔월 열셋새만 되면 공부하던 사람이 죽는 등 번고가 일어났다. 소세양은 팔월 열셋새에도 절에서 도망치지 않고 시신이 거꾸로 오는 모습을 보고, 대담하게 대면하여 사연을 묻는다. 그 혼령이 소세양처럼 절에서 과거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중에게 죽임을 당한 사연을 듣고 이튿날 익산 관아에 가서 사건을 해결했다. 지금 그 절터가 남아 있다.⁴⁵

조선은 국가의 이념적 통치 기반을 유교에 두면서 괴력난신을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조선의 사부설화(士夫說話)에서 원귀의 등장과 해원의 패턴은 반복해서 등장한다. 절에서 과거 공부를 하는 예비 사대부 소세양은 귀신을 대담하게 대면하고 원혼을 풀어준다. 주로 가문 내에서 구전되는

45 〈원귀가 된 젊은이의 한을 풀어준 소세양〉,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13 익산시편(2017).

이 설화의 내용은 소세양의 한시 <足成鬼詩句>의 시작(詩作) 배경에 얽힌 일화이다.

선생이 아이 때 상원사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스님들이 양곡에서 청하기를 매년 오늘밤에 어떤 귀신이 사람을 놀라게 해서 죽는 자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피하시오 하니 양곡이 불응하고 홀로 밤을 지낼 때 한 귀신이 거꾸로 서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이 시의 상구를 읊조리고 왔다. 선생이 곧 하구로 화답하니 귀신이 인하여 곧바로 서서 부채에 써주기를 청하며 “나는 이 고을 입석리 이좌랑의 가인인데 일찍이 이 절에서 공부할 때 스님 모을이라는 자가 있어 사육으로 내가 측간에 가는 것을 엿보다가 발로 차서 뒷간에 거꾸러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원통함을 알리고자 하오니 선생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집을 내려가더니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제승이 모여들어 모두 선생이 걱정 없이 편히 지낸 것을 하례하였다. 선생이 인하여 승도들에게 먹이고 일일이 그 이름을 물어 모을이라는 자를 알게 되어 드디어 가노들이 주찬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를 포박하고 또 제승으로 하여금 뒷간을 검사하게 하니 과연 거꾸로 빠진 시체가 썩지 않고 있었다. 선생이 시를 써준 부채도 또한 그 손에 있었다. 그 집에 통고하여 시체를 거두어 가게 하고 모을은 관에 보내져 타살되었다.⁴⁶

소세양이 아이 때 상원사에서 과거 공부를 할 때 이 절에서는 매년 어느 날이면 귀신이 나와 사람들이 놀라 죽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소세양은 어린 나이에도 담대하게 귀신과 대면하여 시를 주고받으며 억울하게 죽은 원귀의 사연을 듣고 이를

46 <足成鬼詩句>는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月白琉璃閣 秋深錦繡堆 何山何白骨 清夜倒吟來 (달은 유리같이 밝은데 / 가을은 비단실 수놓은 듯 깊어만 가네 / 어느 산 어느 백골이 / 고요한 밤에 거꾸로 서서 시를 읊조리며 찾아왔느냐) 『양곡문집』 권지10, 시 번역은 심규정(1994), 앞의 논문, 112쪽에 따름.

해결해주어 원혼을 해원시킨다. 과거 공부를 할 때 겪은 일이고 범인이 승려라는 점은 또 다른 소세양 신원담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소세양이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여인 혼령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에게 겁탈당해 자결한 여인의 한을 풀어준 〈여인 혼령들을 만나 원혼을 풀어준 소세양〉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세양이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충청도 어느 고을의 부잣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게 되었다. 주인 아씨의 청으로 하인을 시켜서 서로 시문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글솜씨가 너무 놀라웠다. 주인 아씨는 소세양을 직접 만나고자 하였으나 소세양은 귀신에 홀린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주인아씨는 지붕에 올라가 떠나는 소세양의 뒷모습을 보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다. 도망친 소세양은 밤길에 어떤 암자에 들러서 그곳 중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중도 탄박하다가 喪中인 여인을 겁탈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겁탈당한 그 여인은 자결하였다. 소세양이 중을 호통치고 소세양의 기세에 놀린 중은 뒷걸음질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자, 소세양과 시문을 나누던 아씨와 중에게 겁탈당한 소복의 여인이 여귀로 나타나 서로 다투었다. 다툼에서 이긴 소복의 여인이 원수를 갚아주어 고맙다고 소세양에게 큰절을 하였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소세양은 대과에 급제하였다.⁴⁷

〈여인 혼령들을 만나 원혼을 풀어준 소세양〉은 상사여귀(想思女鬼)와 거의 같은 이야기로, 남성 인물에게 거절당한 여귀가 남성 인물에게 원혼을

47 〈여인 혼령들을 만나 원혼을 풀어준 소세양〉,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13 익산시 편(2017). 이 이야기는 ‘想思女鬼’와 같은 내용이다.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참조. 진주소씨중친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제보자는 〈원귀가 된 젊은이의 한을 풀어준 소세양〉과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한다.

품고 따라다니며 훼방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여인 혼령을 만난 소세양은 전혀 놀라지 않고 대담하게 귀신의 사연을 듣고 원귀의 한을 풀어준다.

두 편의 소세양 신원담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소세양이 과거를 공부하거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귀신을 만나고 귀신들이 원한을 갖게 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일이 있는 후 과거에 급제했다고도 한다. 조선 사대부와 귀신의 대면은 설화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귀신을 부정하면서도 귀신과 함께했던 조선 사대부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귀신을 통해 해결하는 부조리함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사대부 남성의 승리를 위해서 마련되었다.⁴⁸ 또 살인과 겁탈을 저지르는 범인이 둘 다 승려로 되어 있어서 불교에 대한 유교의 적대를 설화에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범인인 승려를 징치하고 원귀의 문제를 해결한 예비 사대부 소세양은 선정(善政)과 선교(善敎)를 베풀어야 할 목민관의 잠재적 자질의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다.

소세양 신원담은 지역 공동체 전승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가문 내의 전승에 머무른다. 주로 중앙의 관료와 외교 관료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소세양은 민중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고, 문제해결자로서의 인상이 지역의 설화 전승층에게 각인될 만큼 강렬하지 않아서 신원담의 지역적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 국가적 전란의 위기를 극복한 이항복과 ‘숨은 해결자’라는 강렬한 표상을 가진 박문수가 신원담의 주인공으로 널리 퍼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예비 사대부 소세양이 유교의 적대로 설화에 구조화된 범죄자 승려를 징치하고 원귀의 원혼을 풀어주는 등 조선 사회 내부의 문제해결자로 등장하는 신원담은 소세양을 선정(善政)과 선교(善敎)

48 조선 사대부와 귀신 담론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장윤선, 『조선의 선비, 귀신과 통하다』(이숲, 2008); 최기숙, 『처녀귀신: 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문학동네, 2010); 강상순, 『귀신과 괴물: 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소명, 2017).

의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유교적 인간상으로 진지하게 그려내고자 했던 가문의 지향을 담고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그동안 설화의 인물로서 주목받지 않았던 소세양 설화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설화의 유형별 의미를 고찰하고, 설화 유형별로 설화 전승층이 그려낸 소세양의 인물 형상을 살펴보았다. 소세양 설화는 풍수담, 애정담, 지혜담에 속하는 유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세양 설화에는 주인공의 출생과 죽음을 신이화한 이야기가 없고, 삶의 문제에 대해 주인공이 대응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층위에서 소세양의 인물 형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별명당 전설은 못자리를 소점한 지관이 혈에서 나온 벌에 쏘여 죽는다는 화소가 나오는 풍수담이다. 진주소씨 족보와 가문 내의 구전으로 전하는 별명당 전설은 소세양의 조부와 증조모의 별명당 획득 과정을 사실화하고, 별명당의 발복을 받은 소세양은 명문가로서 진주소씨의 위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 『어우야담』 소재 별명당 전설은 소세양이 별명당 발복으로 출세했다는 민간의 전설을 유몽인이 흥미롭게 재창작한 것으로 소세양은 부귀영화를 열망하는 사대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완주지역에서 구전되는 별명당 전설은 소세양 칠형제에서 비롯하는 발산소씨의 내력담으로, 전승집단의 서사지향은 금기위반과 적덕보은 화소에 기반한 교훈과 감동에 있다.

애정담 유형의 구비설화에서 소세양은 사랑과 성공을 얻은 인물로 형상

화된다. 『수춘만록』에 나오는 소세양과 황진이의 일화는 사대부의 연애담으로 널리 구전되었다. 소세양의 궤절은 회화화되거나 풍자되지 않고 사대부의 풍류로 받아들여지며, 소세양과 황진이의 관계는 짧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구비전승은 사대부와 기녀의 연애담에 반영된 사대부의 의식지향이 남성 구비전승층에게 투사된 결과로 보인다. 집안의 격차로 소세양과 혼인하지 못하자 자결한 반가녀(班家女)의 이야기 <황각동 처녀>는 원혼설화로 전개되지 않고, 유력 가문과의 혼반(婚班) 형성에 실패하고 자력으로 출세하여 가문의 중흥을 이룬 소세양의 성공담으로 전승되었다.

소세양이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 문제와 조선 사회 내부에 잠재된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는 지혜담에서 소세양의 형상은 지략담의 해학성과 신원담의 진지성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표상화되었다. 지략담인 <중국 사신을 따돌린 소세양>이 중국과 조선의 대결구도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과장과 해학을 동원하는 민중취향의 이야기라면, 예비 사대부 소세양이 승려를 징치하고 원혼을 풀어주어 조선 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원담은 소세양을 선정(善政)과 선교(善教)의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유교적 인간상으로 진지하게 그려내고자 했던 가문의 지향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조선왕조실록』.

『동국시화회성』.

『양곡선생문집』.

『기문총화』.

『수춘만록』(임방 저, 김동욱 역, 『국역 수춘만록』. 아세아문화사, 2001).

『於野談』(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於野談』(유몽인 저, 이월영 역, 『어우야담』 1·2·3. 달심, 2019).

『金馬志』(南泰普 編著, 이의강 외 역, 『금마지』. 익산시, 2019).

『晉州蘇氏族譜』, 華山齋[1935].

익산문화원, 『益山郷土誌』 I·II·III. 익산문화원, 2007.

국토지리정보원, 「익산시(益山市)」.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2010.

이상보 편, 『양곡선생실기(陽谷先生實紀)』. 199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5-13 전라북도 익산시. 역락, 2017.

황인덕, 『완주의 구전설화』. 완주문화원, 2001.

2. 단행본

강상순, 『귀신과 괴물: 조선 유교사회의 그림자』. 소명, 2017.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정진영, 『혼인, 세상을 바꾸다: 조선시대 혼인의 사회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최기숙, 『처녀귀신: 조선시대 여인의 한과 복수』. 문학동네, 2010.

3. 논문

강민구, 「우리나라 중세 사대부의 기녀 판타지」. 『東方漢文學』 제64집, 2015, 53-90쪽.

권기석, 「반남박씨(潘南朴氏)의 수보(修譜) 이력과 편집 방식」. 『한국계보연구』 7권, 2017, 143-180쪽.

김동욱, 「『수춘만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11권, 2000, 147-167쪽.

- 김영미, 「황진이 일화의 주제소 연구: 모본(母本)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71집, 2019, 183-217쪽.
- 김학성, 「全北 益山傳說의 一考察」. 『郷土文化研究』 1집, 圓光大學校 郷土文化研究所, 1978, 47-67쪽.
- 노영미, 『〈어우야담〉 고찰: 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노인숙, 「황진이 한시 연구」. 『청람어문교육』 23권, 2001, 225-242쪽.
- 박기현, 「자살 관련 설화의 특성과 인식 연구: 여성 자살담을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40집, 2015, 43-73쪽.
- 송준호, 「1750年代 益山地方의 兩班」. 『전북사학』 7집, 1983, 375-392쪽.
- 신상필, 「필기, 야담에 형상화된 기생의 면모와 그 번역학적 의미」. 『동방한문학』 제64집, 2015, 29-52쪽.
- 심규정, 「陽谷 蘇世讓의 生涯와 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안장리, 「중국사신에 대한 서민층과 사대부층의 인식 비교」. 『역사민속학』 제33집, 2010, 385-413쪽.
- 오경택, 「15-16C 전반 전주권 사족사회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논총』 36, 2011, 141-221쪽.
- 윤분희, 「황진이 이야기의 의미 생성과 변모」. 『우리말글』 34집, 2005, 151-184쪽.
- 이동준, 「황진이 설화의 문학적 연구」. 『어문학』 제60호, 1997, 435-467쪽.
- 이월영, 「소세양의 연행시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40집, 2017, 225-253쪽.
- 임경옥, 「조선조 문헌소재 기녀담 연구: 애정담과 경계담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광국, 『기녀담·기녀등장소설의 기녀 自意識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규무,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인간연구』 9, 2005, 58-61쪽.
- 현혜경, 「〈於于野談〉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 樣相과 意味」.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8권, 2004, 273-304쪽.
- 홍석영, 「陽谷 蘇世讓放: 그의 生涯와 文學」. 『文理研究』 제1권, 1983, 22-36쪽.

4. 인터넷 사이트

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 익산시 구술사 DB(www.isoh.or.kr).

지역정보포털 향토자원(www.oneclick.or.kr).

한국구비문학대계 Web DB(gubi.aks.ac.kr).

국문초록

유능한 관료이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던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은 문헌과 구비 설화의 인물로도 전승되고 있다. 소세양 설화는 풍수담, 애정담, 지혜담 유형에 속하며, 편찬자 또는 전승집단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서사의미를 지향한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설화의 인물로서 주목받지 않았던 소세양에 관한 설화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설화의 유형별 의미를 고찰하고, 설화 유형별로 설화 전승층이 그려낸 소세양의 인물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소세양 설화에는 주인공의 출생과 죽음을 신이화한 이야기가 없고, 삶의 문제에 대해 주인공이 대응하는 방식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층위에서 소세양의 인물 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소세양 설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세양의 다양한 인물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풍수담인 별명당 전설에서 소세양은 별명당 발복으로 출세한, 진주소씨 가문의 대표 인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풍수를 신봉하여 부귀영화를 열망하는 조선 사대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애정담에서 소세양은 조선 최고 기녀 황진이와 연애하며 욕망을 탐하는 사대부 남성으로, 또 자신의 집안보다 격이 높은 유력 가문의 반가녀와 혼사가 깨진 일을 계기로 분발하여 자력으로 출세하고 가문을 일으킨 가문의 중흥조로 형상화되었다. 소세양이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 문제와 조선 사회 내부에 잠재된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는 지혜담에서 소세양의 형상은 지략담의 해학성과 신원담의 진지성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표상화되었다.

투고일 2019. 12. 20.

심사일 2020. 4. 2.

계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소세양(Soh Se-yang), 풍수담(Tales of Pungsu), 별명당 전설(the perfect spot that bees poured out), 애정담(Love story), 황진이(Hwang Jini), 황각동 처녀(Maiden of Hwanggak-dong), 지혜담(Wisdom tale), 금마삼기(金馬三奇, Three specialties of Geum-ma), 지략담(Tales of cleverness), 신원담(Tales of vengeance)

Abstracts

The Tale of Soh Se-yang: Meanings by Type and the Character of Soh Se-yang

Kim, Seung-yeon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s and aspects of the narratives of three main types of the Tale of Soh Se-yang to shed light on the figure of Soh Se-yang they portray. The story of the unique figure Soh Se-yang (1486-1562), who was renowned as a competent bureaucrat and the best writer of his time, has been transmitted over time via various types of oral narratives—as a tale of *pungsu*(geomancy), a tale of romance involving Hwang Jini, a tale of marriage, and a tale of vengeance—all of which pursue different narrative meaning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editor and/or storyteller.

This study shows how the character of Soh Se-yang emerges as a variety of figures: as a figure representing a household that rose to fame due to a propitious gravesite; as a nobleman who loves a *ginyeo* and has a taste for the arts; as a figure that revives his household on his own after marriage arrangements with a powerful family falls through; and finally, as an aspiring scholar-official who displays pride in the civilization of Joseon to Chinese envoys while also solving the societal problems of Joseon by avenging a ghost.